

삶의 의미 추구하고 학업만족의 관계: 희망의 매개효과 및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박 지 영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정 예 슬†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한국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삶의 의미추구와 학업만족의 관계에서 희망의 역할을 파악하고 희망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삶의 의미추구와 학업만족의 관계를 희망이 매개할 것이라고 가정하였고, 삶의 의미추구와 희망의 관계에서 가족 및 친구지원의 조절효과를 예상하였다. 연구 1에서 대학생 19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희망이 삶의 의미추구와 학업만족의 관계를 완전 매개함을 확인하였다. 연구 2에서는 희망을 내적 희망과 가족, 친구, 초월적 존재에 기반 한 외적 희망으로 구분하여 삶의 의미추구와 학업만족의 관계에서 희망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고등학생 31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연구 2), 고등학생의 삶의 의미추구와 학업만족의 관계가 내적 희망과 친구에게 기반 한 외적 희망에 의해 완전매개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및 초월적 존재에 기반 한 외적 희망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와 관련하여, 삶의 의미추구와 희망의 관계에서 가족 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의 의미추구와 희망의 정적 관계(연구 1) 및 삶의 의미추구와 내적 희망의 정적관계(연구 2)가 강하게 나타났다. 삶의 의미추구와 희망의 관계에서 친구지원의 조절효과는 연구 1과 연구 2에서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삶의 의미추구, 학업만족, 희망, 내적 희망, 외적 희망, 가족지원, 친구지원

* 본 논문은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6A3A01078538).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정예슬,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박사후 연구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 E-mail: yseul.jung@gmail.com

한국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입시와 교육, 취업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의 주요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시기이며(한덕웅, 최훈석, 2006), 자신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경험하고 있는 시기이다(Arnett, 2000; Erikson, 1968). 불확실성은 개인으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질문하고 삶의 의미를 추구하게끔 한다(Frankl, 1963). 삶의 의미추구(search for meaning in life)는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로(Frankl, 1963), 심리적 안녕감(Steger, Oishi, & Kashdan., 2009), 적응적 태도 뿐 아니라 자살에 대한 생각과도 관계된다(Alter & Hershfield, 2014). 주요한 변화를 겪는 시기에 삶의 의미추구에 대한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안녕감의 하락을 경험하기도 한다(Updegraff, Silver, & Holman, 2008). 자신과 삶,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시기인 10대 및 2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삶의 의미추구 수준이 높으며, 삶의 의미추구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또한 높다(김상희, 박성현, 2017; Steger et al., 2009). 삶의 의미추구는 근원적 동기로 진로 및 학습과 같이 삶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조은혜, 이동귀, 배병훈, 2012).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삶의 의미추구를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학습과 관련된 태도를 이해하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습 태도 중 학습만족은 긍정적인 학교생활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학교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뜻한다(Lent, Singley, Sheu, Schmidt, & Schmidt, 2007). 개인의 인지적 요인부터 학교 환경까지 다양한 요인이 학습만족과 관계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윤혜경, 이지연, 2014; Lent et al., 2007),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동기인 삶의 의미추

구와 학습만족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 삶의 의미추구와 같은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는 다양한 영역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Baumeister & Leary, 1995; Buss, 2008).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의미를 만드는 태도는 진로성숙도(조은혜 등, 2012) 및 진로적응성(손영민, 2016)과 같이 진로와 관련된 태도와 관계되며, 기본적 심리적 욕구인 유능성, 자율성, 관계성은 학습 적응에 영향을 준다(김아영, 이명희, 2008). 학습만족에 있어서 결과에 대한 기대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과 같이 미래와 관련된 인식과 행동은 학습만족의 주요 예측 요인으로 주요한 역할을 한다(윤혜경, 이지연, 2014; Lent et al., 2007).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아를 성찰하고(김기정, 김해란, 2016),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조은혜 등, 2012),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Steger, Kawabata, Shimai, & Otake., 2008). 이러한 현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는 주요 삶의 영역인 학습 내 목표 달성과 관계되고(Lent et al., 2007) 이는 학습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삶의 의미추구와 학습만족의 관계에서 희망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한다.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밝게 예상하고 준비하는 태도인 희망을 갖는데(송현심, 성승연, 2017; van Tilburg & Igou, 2018), 희망은 미래지향적이고 역동적인 동기 시스템(Snyder et al., 1991)으로서 삶의 의미추구와 안녕감의 관계를 잇는 주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송현심, 성승연, 2017). 학습 및 경력 개발에서 희망의 중요성이 밝혀지고 있지만(Hirschi, 2014), 국내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학습 환경에서 희망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이

해는 부족한 상황이다. 삶의 의미추구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통해(조은혜 등, 2012),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는 희망을 상승시키고 이는 학업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희망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경로 사고(pathway thinking)와 경로를 활용하여 목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동기화하는 주도 사고(agency thinking)로 구성된다(Snyder, 2002). 본 연구에서는 희망을 느끼는 원천(locus)에 따라 희망을 내적(internal) 희망과 외적(external) 희망으로 나누는 관점(Bernardo, 2010)을 적용하여 희망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주도 사고와 경로 사고의 원천이 자신(self)에게 있는지, 가족, 친구, 초월적(spiritual) 존재와 같이 외부에 있는지에 따라 희망의 종류를 구분하여 삶의 의미추구와 학업만족의 관계에서 희망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삶의 의미추구와 희망의 관계에서 사회적 요인의 역할을 확인하여 희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삶의 의미추구가 희망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현재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봄으로써 내부적으로 긍정심리 자원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Hirschi, 2014). 부모 및 친구와 같은 사회적 지원은 개인이 내부적 자원을 생성해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Hobfoll, 2002).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지원과 친구지원을 높게 인식할 경우 삶의 의미추구와 희망의 정적관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삶의 의미추구와 학업만족의 관계에서 희망의 역할을 이해하고 희망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삶의 의미추구와 학업만족

삶의 의미(meaning in life)는 삶의 의미존재(presence of meaning in life)와 삶의 의미추구와 같이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진다(Steger, Frazier, Oishi, & Kaler, 2006). 삶의 의미존재는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과 목표를 이해하는 정도를 뜻하며, 삶의 의미추구는 개인이 삶의 의미, 중요성, 목적에 대한 이해를 확립하고 확장하려는 노력의 강도 및 활동을 의미한다(Steger et al., 2006). 삶의 의미존재는 문화 및 나이에 관계없이 다양한 종류의 안녕감과 일관적으로 정적 관계를 갖는 반면(King & Napa, 1998; Steger et al., 2008; Steger et al., 2009), 삶의 의미추구는 서구권과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안녕감에 미치는 양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Steger et al., 2008). 서구권에서 삶의 의미추구와 의미존재는 부적 관계를 보이며, 삶의 의미추구는 안녕감과도 부적관계를 보인다(Steger et al., 2008). 반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삶의 의미추구와 삶의 의미존재는 정적 관계를 가지며, 삶의 의미추구 역시 삶의 만족과 정적 관계를 보인다(김상희, 박성현, 2017; 송현심, 성승연, 2017; Steger et al., 2008). 연구자들은 문화에 따라 삶의 의미추구와 삶의 의미존재의 관계가 다른 것을 변증법적 사고(dialecticism)로 설명하기도 한다(Steger et al., 2008). 서구권에서는 두 개의 충돌되는 입장에 대해서 하나의 입장이 지배적인 반면, 동양에서는 인지적, 정서적으로 충돌되는 두 입장을 모두 취하는 통합하는 사고를 보인다(Spencer-Rodgers, Boucher, Mori, Wang, & Peng, 2009). 의미존재와 의미추구에 있어서도 서구권에서는 의미존재를 긍정적으로 의미추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한국인을 비롯한

동양인은 의미존재와 의미추구가 양극단에 위치하기 보다는 조화로운 위치에서 정적 관계를 갖는다고 인식한다(Steger et al., 2008; Steger et al., 2009). 또, 삶의 의미추구와 삶의 만족의 정적 관계에 대해서 학자들은 상호의존적(interdependent) 문화에서는 노력과 자기향상(self-improvement)에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는데(Oishi & Diener, 2003), 삶의 의미추구는 미래에 가치를 부여하고 목표를 향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삶의 의미추구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서구문화권과는 달리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Steger et al., 2008).

학업만족은 학습자가 학교에서 경험하는 전반적인 만족수준을 뜻한다(Lent et al., 2007). Lent와 동료들(2007)에 따르면 사회 환경적 요인과 개인의 인지적 요인이 학업만족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회 환경적 요인은 자기효능감과 같은 개인의 인지적 요인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에 대한 인식이 개인이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이나 미래에 대한 기대, 목표를 향한 노력으로 이어질 때 학업만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윤혜경, 이지연, 2014; Lent et al., 2007). 즉, 학업만족에 있어서 현재의 상황을 개인이 어떻게 인식하고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하는가는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 삶의 의미추구 활동은 고되더라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을 뜻하며(Steger et al., 2009), 삶의 목적과 가치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가치감을 쌓는 것을 뜻한다(Baumeister, 1991). 자신에 대한 가치감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기대는 학업 영역의 목표를 향상시키고 이는 궁극적으로 학업만족을 불러일으킨다(Lent, Singley, Sheu, Gainor, Brenner, Treistman, & Ades, 2005).

또,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성장과 자아실현을 위해 자기성찰을 더 많이 한다(김기정, 김해란, 2016). 이러한 자기성찰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활동은 삶의 의미추구가 힘겨운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원동력이 된다(조은혜 등, 2012).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노력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가치감을 향상시키며 이는 학업 목표를 달성하고 학업만족을 향상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Lent et al., 2005).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삶의 의미추구와 학업만족의 정적 관계를 예상하였다.

희망의 역할: 내적 희망과 외적 희망

삶의 의미추구가 학업만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재의 삶의 의미추구가 미래의 목표 성취에 도움이 되고 바람직한 목표달성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Snyder, 2002), 즉 희망의 역할이 중요하다. Snyder(2002)에 따르면, 희망의 인지적 과정은 목표(goals), 경로(pathways), 주도성(agency) 등 세 개의 요소로 구성된다. 경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방법 및 경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뜻하며, 주도성은 해당 경로를 사용하는 동기를 뜻한다(Snyder, 2002; Snyder et al., 1991). 희망이 낙관주의와 구별되는 큰 특징은 주도성을 지니고 경로 사고를 한다는 점이다(Luthans & Jensen, 2002; Snyder, 2002). 희망을 지닌 사람들은 주도 사고와 경로 사고를 바탕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며 이는 긍정적인 미래의 결과를 유발시킨다(Luthans & Jensen, 2002; Snyder, 2002).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환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장애물을 이겨내고 부정정서를 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nyder, 2002).

희망은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을 위한 능력을 뜻한다는 점에서 삶의 의미추구와 학업만족의 관계를 잇는 주요한 매개체 역할을 할 것이다.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과정은 자아를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고 조직화하는 과정으로 (Frankl, 1963), 스트레스를 주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해하고 개인의 인지적 체계를 통합함으로써 통제감을 회복하는 과정이다(정주리, 이기학, 2007). 삶의 의미추구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고(정주리, 이기학, 2007)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 정서를 경험한다(조은혜 등, 2012). 삶의 의미를 찾는 동기는 나와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은 완화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게 하여 자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는 희망이라는 자원(Hirschi, 2014)을 생성할 수 있다. 희망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강점으로 묘사되며 역경과 불확실한 상황에서 발현된다(Park, Peterson, & Seligman, 2004). 삶의 의미추구로 향상된 희망은 목표에 이르는 경로를 찾고 주체적으로 자신을 동기화하여(Snyder, 2002) 청소년의 주요 삶의 영역인 학업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 학업 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다(Lent et al., 2005). 청소년의 희망과 학업 및 삶의 만족의 정적 관계는 한국(이희경, 2007; 송현심, 성승연, 2017)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권에서(Bernardo, 2010; Du, Bernardo, & Yeung, 2015; Hirschi, 2014; Snyder et al., 1996) 일관적으로 나타났다으며, 삶의 의미추구와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는 한국 대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밝혀진 바

있다(송현심, 성승연, 2017).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삶의 의미추구와 학업만족의 관계를 희망이 매개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희망을 세분화하여 삶의 의미추구와 학업만족의 관계에서 희망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Bernardo(2010)는 Snyder(2002)의 희망이론을 기반으로 희망의 동인의 위치(locus)에 따라 희망을 내적 희망(internal hope)과 외적 희망(external hope)으로 분류하였고 외적 희망은 외적-가족, 외적-친구, 외적-초월적 희망 등 세 개로 분류하였다.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목표 및 경로를 달성하기 위해 내적 혹은 외적 동인(agents)에 의존한다(Snyder, 2002). 내적 희망은 목표 달성을 위한 주도성과 경로가 자신에게 있다고 믿는 반면, 외적 희망은 가족, 친구, 초월적 존재와 같은 외적 존재가 주도성과 경로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을 뜻한다(Bernardo, 2010). 이와 같은 희망의 네 개 요인은 필리핀(Bernardo, 2010)과 홍콩(Du et al., 2015)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지된 바 있다. 외적 희망은 가족, 친구와 같이 외부적 요인이 희망의 근원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지의 개념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희망은 목표를 성취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로와 관련한 생각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지지와 구별된다(Bernardo et al., 2017).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 자원(coping resource)으로 개인의 안녕감 향상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Zimet, Dahlem, Zimet, & Farley, 1988), 희망은 특정 목표를 달성하고 구체적인 경로 탐색과 관련된 인식이다(Bernardo et al., 2017). 사회적 지지가 목표 달성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나 도움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외적 희망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며, 부모의 지지와 부모

에 기반 한 외적 희망은 보통 수준의 정적 관계($r = .43$)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두 개념은 구별되는 개념인 것으로 밝혀졌다(Bernardo et al., 2017).

내적 희망과 외적 희망은 다른 특색을 지니고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Du et al., 2015; Du & King, 2013). 내적 희망은 개인주의와 독립적 자기해석(independent self-construal)과 정적 관계가 있는 반면, 외적 희망은 집단주의 및 상호의존적 자기해석(interdependent self-construal)과 정적 관계를 지닌다(Bernardo, 2010; Du & King, 2013). 1000여 명의 홍콩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개인적 자아존중감(personal self-esteem)은 내적 희망과 삶의 만족의 관계를 매개했으며, 대인적 자아존중감(relational self-esteem)은 내적 희망 및 가족에 기반 한 외적 희망과 삶의 만족의 관계를 매개했다(Du et al., 2015).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는 내적 희망과 가족에게 기반 한 외적 희망은 삶의 만족과 자아존중감과 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친구에게 기반 한 외적 희망은 삶의 만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갖지 않았으며, 초월적 존재와 관련된 외적 희망은 삶의 만족 및 자아존중감과 부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Du & King, 2013). 외적 희망 중 초월적 희망은 기존 연구에서 안녕감과 관계가 유의하지 않거나(Du et al., 2015), 부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Du & King, 2013). 희망의 네 개 요인은 국내에서 타당화 되지 않았고 실증적으로 연구된 적이 아직 없기 때문에 삶의 의미추구와 학업 만족의 관계에서 희망의 네 개 요인의 역할을 탐색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사회적 지원의 강화효과

삶의 의미추구는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는 건강한 동기에서 출발하기도 하지만(Frankl, 1963), 좌절과 결핍으로 인해서 생겨나기도 한다(Baumeister, 1991). Steger 등(2009)은 삶의 의미추구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삶에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지만 더 나은 길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묘사하였다. 삶의 의미추구 자체가 노력과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일이기 때문에(Frankl, 1963), 삶의 의미추구가 긍정적으로 기능하고 발현될 수 있는 사회적 요인이 중요하다(Shin & Steger, 2016). 미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삶의 의미추구와 안녕감의 관계에서 학교의 지원적 환경(supportive environment)의 조절역할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학교의 환경이 지원적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만 삶의 의미추구가 증가할수록 삶의 의미존재가 향상되었다(Shin & Steger, 2016). Shin과 Steger(2016)는 삶의 의미추구와 환경, 안녕감의 관계를 Astin(1991)의 투입(input)-환경(environment)-결과물(output) 모델을 이용해 설명하였다. 삶의 의미추구, 희망, 안녕감과 같은 개인의 특성이 바람직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동료집단 및 정책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중요함을 강조했는데(Astin, 1991; Shin & Steger, 2016), 삶의 의미추구와 희망의 관계 역시 대외적 요인인 가족 및 친구의 지원 수준에 따라 강화되거나 약화될 수 있다.

사회적 자원은 삶의 의미추구와 희망의 관계를 강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사회적 자원은 희망을 향상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다(원두리, 2011; 최아라, 이숙, 2016; Bernardo, Wang, Pesigan, & Yeung, 2017). 희망은 환경과의 상호작용 안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주위의

다양한 인간관계로부터 받는 지속적인 지지가 중요하다(원두리, 2011; Bernardo et al., 2017). 특히, 다양한 사회적 관계 중에서 부모와 친구 지지가 청소년의 희망에 주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원두리, 2011; 장효진, 임정하, 2011; 최아라, 이숙, 2016; Bernardo et al., 2017). 국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희망의 관계를 밝힌 연구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받는 정보적 지지 및 친구로부터 받는 존중과 평가와 관련된 지지가 국내 중고등학생들의 희망을 정적으로 예측했다(장효진, 임정하, 2011). 또, 부모지원, 교사지원 및 친구지원과 같은 사회적 자원이 희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연구 결과, 부모지원과 친구지원이 희망에 미치는 영향만 유의했으며 교사지원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최아라, 이숙, 2016).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원 중 부모지원과 친구지원이 삶의 의미추구와 희망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가족과 친구로부터 받는 지원은 적응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이 심리적 안녕감 회복을 촉진한다(Hobfoll, 2002). 삶의 의미 추구 활동은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자원을 필요로 한다(Hirschi, 2014). 삶의 의미추구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스스로 동기부여하며 내부적 자원을 만들어 내지만, 개인 내부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외부의 자원인 사회적 자원은 개인적 자원의 손실을 막아주고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Hobfoll, 2002). 특히, 청소년기와 같이 다양한 변화에 적응하고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과정에서(Erikson, 1968) 사회적 지지와 같은 외부의 자원은 스트레스를 맞서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Hobfoll, 2002). 다양한 형태의 사회

적 지지는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태도 형성에 영향을 준다(Grolnick & Slowiaczek, 1994). 삶의 의미추구와 희망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지원과 같은 외부 자원은 해당 관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지원은 부모가 자녀의 학습활동에 긍정적 조력을 제공하고, 투자하는 것을 뜻한다(Grolnick & Slowiaczek, 1994). 부모지원은 학업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Fan & Chen, 2001), 부모지원을 받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좋은 학습 환경에 속하게 되며, 새로운 학습경험과 같은 실질적, 심리적 도움을 받게 된다(문은식, 김충희, 2003). 사회적 지원은 희망의 주요한 예측변인 중 하나이며(Yarcheski & Mahon, 2016), 부모는 의사결정 상황에서 정보, 충고, 지식을 제공하는 정보적 지지를 통해 희망의 향상에 기여한다(장효진, 임정하, 2010). 부모의 지원이 희망에 미치는 정적 영향력은 중고등학생(장효진, 임정하, 2010; 원두리, 2011) 및 대학생(Bernardo et al., 2017)에 걸쳐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부모의 지원이 삶의 의미추구와 희망의 정적 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청소년 후기로 갈수록 부모의 지원은 줄어들고 친구가 사회적 관계의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친구지원은 주요한 사회적 자원이 된다(Raja, McGee, & Stanton, 1992). 친구지원을 받음으로써 자신과 타인을 수용하고 타인에게 인정을 받는 기회를 익히며, 또래집단과의 경험을 통해서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익힌다(Hartup, 1996). 돈독한 또래 관계 및 높은 수준의 친구지원은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자아존중감 향상의 근원이 된다(Hartup, 1996).

친구지원과 희망의 관계에서도 친구지원은 가족지원, 교사지원과 같은 사회적 지원 중에서 청소년의 희망에 가장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최아라, 이숙, 2016).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친구지원은 주요 사회적 자원으로써 삶의 의미추구와 희망의 정적 관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설문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1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삶의 의미추구와 학업만족의 관계에서 희망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학업만족은 해당 영역과 관련된 사회적 인지적 요인이 중요하다라는 결과를 바탕으로(Lent et al., 2005) 학업과 관련된 희망을 측정하였다. 또, 삶의 의미추구와 희망의 관계를 가족지원 및 친구지원이 강화하는지 확인하였다. 연구 2는 연구 1의 결과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반복 검증하는 동시에, 희망을 세분화한 척도를 사용하여 희망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였다. 희망의 척도를 내적 희망, 외적-가족, 외적-친구, 외적-초월적 존재 희망으로 구분한 네 개의 희망의 분류는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심리적 자원 및 안녕감 향상에 있어서 사회적 요인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희망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Bernardo, 2010). 해당 희망 척도는 학업 영역이 아닌 일반적인 희망에 대한 척도로 일반적인 희망은 특정 영역에 대한 희망과 구별되지만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Cecil & Sage, 2010). 국내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학업과 같은 특정 영역의 희망이 아닌 일반적인 희망이 학업 내 관계의 질(이희경, 2007), 학업 내 효능감 및 성취(장은주, 이종연, 2014)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2에서는 일반적인 희망을 측정하였다. 두 개의 연구를 통해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삶의 의미추구와 학업만족의 관계에서 희망의 역할을 반복검증하고 희망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희망을 강화하는 방편으로 사회적 지원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1

방 법

연구대상

연구 1의 참가자들은 4년제 대학교에서 심리학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로 수업 요건의 일환으로 연구 참여에 자원한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연구는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해 간단히 안내 받은 후,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적인 동의 의사를 밝힌 경우에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완료한 사람들은 크레딧을 지급받았다. 연구 참여의사를 밝힌 204명의 학생들 중 설문 응답 미완료자 14명을 제외한 190명의 학생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참가자들 성별은 남학생 107명(56.3%), 여학생 83명(43.7%)으로 구성되었다. 평균 연령은 만 20.64세($SD = 2.24$)였다. 참가자들의 학년 구성은 1학년이 79명(41.6%)으로 가장 많았고, 2학년이 43명(22.6%), 3학년이 28명(14.7%), 4학년이 40명(21.1%)로 구성되었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상, 중상, 중, 중하, 하로 질문하였고, 중층이 91명(47.9%)로 가장 많았고, 중상층 65명(34.2%), 중하층 20명(10.5%), 하층 7명

(3.7%), 상층 7명(3.7%)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삶의 의미추구

삶의 의미추구는 Steger와 동료들(2006)이 만든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MLQ)를 원두리와 동료들(2005)이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삶의 의미추구는 총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다. 예시문항으로는 “나는 내 삶을 의미있게 만드는 무언가를 찾고 있다”가 있다. 연구 1의 해당 척도의 신뢰도계수는 .914이었다.

희망

희망은 Luthans와 동료들(2012)가 개발한 학업적 심리적 자본(Academic Psychological Capital Questionnaire, A-PCQ)을 사용하였다. 심리적 자본에는 희망, 효능감, 회복탄력성 및 낙관주의 등 네 개의 하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항목 당 6문항 씩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희망 척도는 Snyder와 동료들(1996)이 개발한 상태 희망 척도에서 6개 문항을 차용하여 만들어졌다. 희망은 6개 문항을 6점 척도로(1=전혀 아니다, 6=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다. 예시문항으로는 “나는 현재 학업 생활과 관련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가 있다. 연구 1의 희망의 신뢰도계수 .882이었다.

학업만족

Lent et al.(2005)의 학업만족을 김진관(2014)이 번안하여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한 학업만족을 사용하였다. 7개의 문항을 5점 척

도(1=매우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내 전공 및 학업생활에 만족한다”가 있다. 연구 1에서 학업만족의 신뢰도계수는 .889이었다.

가족지원 및 친구지원

가족지원 및 친구지원은 Zimet과 동료들(1998)이 개발하고 신준섭과 이영분(1999)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족지원과 친구지원은 각각 4문항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게 하였다. 가족지원의 예시문항은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가족으로부터 얻는다”, 친구지원의 예시문항으로 “나는 나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 등이 있다. 연구 1에서 가족지원의 신뢰도 계수는 .888이었고, 친구지원의 신뢰도 계수는 .910이었다.

통계변인

연구 1, 2에서 삶의 의미추구 및 희망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명료히 하고자 삶의 의미추구(김상희, 박성현, 2017; 송현심, 성승연, 2017) 및 희망(송현심, 성승연, 2017)과 정적 관계를 보이는 삶의 의미존재를 통제하였다. 삶의 의미존재는 MLQ(Steger et al., 2006)의 하위척도로 측정하였다. 총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내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가 있다. 연구 1의 해당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21이었다.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사회경제적 지위가 삶의 의미(Ward & King, 2016) 및 학업만족(황여정, 김경근, 2006)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와 연령을 통제하였다.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1.0 프로그램과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하였다.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상관계수를 산출한 후, 연구에 사용된 척도들의 신뢰도 계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삶의 의미추구와 학업만족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희망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검증을 실시하였다(Shrout & Bolger, 2002).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하여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으며,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삶의 의미추구와 사회적 지원(가족지원,

친구지원)의 상호작용 효과가 희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주요 변인들의 상관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통제변인 사회경제적 지위는 희망($r = .147, p < .05$), 가족지원($r = .273, p < .001$), 학업만족($r = .255,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삶의 의미추구는 삶의 의미추구($r = .554, p < .001$), 희망($r = .449, p < .001$), 가족지원($r = .235, p < .01$), 친구지원($r = .271, p < .001$), 학업만족($r = .424,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독립변인인 삶의 의미추구의 경우 희망($r = .410, p$

표 1. 기술통계 및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 (연구 1)

	1	2	3	4	5	6	7	8
1. 연령	-							
2. 사회경제적 지위	-.088	-						
3. 삶의 의미존재	.076	.082	-					
4. 삶의 의미추구	-.007	.132	.554***	-				
5. 희망	-.007	.147*	.499***	.410***	-			
6. 가족지원	-.092	.273***	.235**	.226**	.207**	-		
7. 친구지원	-.018	.122	.271***	.304***	.230**	.456***	-	
8. 학업만족	-.046	.255***	.424***	.312***	.589***	.259***	.249**	-
M	20.640	3.240	4.458	5.247	4.037	5.405	5.422	3.353
SD	2.242	.830	1.101	1.093	.881	1.209	1.136	.746

주. N=190. 사회경제적 지위: 하층(1)~상층(5). * $p < .05$, ** $p < .01$, *** $p < .001$

< .001), 가족지원($r = .226, p < .01$) 친구지원($r = .304, p < .001$), 학업만족($r = .312,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인인 희망의 경우 학업만족($r = .589,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조절변인인 가족지원($r = .259, p < .001$)과 친구지원($r = .249, p < .01$)도 학업만족과 각각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희망의 매개효과

삶의 의미추구와 학업만족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모형 1에서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삶의 의미존재를 통제한 이후 삶의 의미추구와 학업만족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학업만족에 대한 삶의 의미추구의 전체 효과(total effect)는 유의하지 않았다($\beta = .081,$

ns). 모형 2에서 삶의 의미추구와 희망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삶의 의미추구는 희망과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beta = .180, p < .05$). 모형 3에서는 희망과 학업만족이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며($\beta = .477, p < .001$), 희망을 투입한 이후 삶의 의미추구와 학업만족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eta = -.005, ns$). Hayes(2009)가 제안한 바에 따르면, 전체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더라도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의 관계, 매개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가 모두 유의미하며 매개모형 검증 이후 관계의 방향이 이전과는 반대로 나타났을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존재한다. 따라서 희망이 삶의 의미추구와 학업만족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그림 1).

희망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하였다.

표 2. 삶의 의미추구와 학업만족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 효과 (연구 1)

	모형 1 DV: 학업만족			모형 2 DV: 희망			모형 3 DV: 학업만족		
	B (SE)	β	t	B (SE)	β	t	B (SE)	β	t
연령	-.020 (.022)	-.059	-.909	-.014 (.025)	-.035	-.554	-.020 (.022)	-.059	-.909
사회경제적 지위	.194 (.058)	.216	3.331**	.110 (.067)	.103	1.629	.194 (.058)	.216	3.331**
삶의 의미존재	.278 (.044)	.411	6.353***	.395 (.051)	.493	7.768***	.278 (.044)	.411	6.353***
삶의 의미추구	.055 (.053)	.081	1.046	.145 (.061)	.180	2.391*	-.003 (.048)	-.005	-.065
희망							.404 (.057)	.477	7.068***

주.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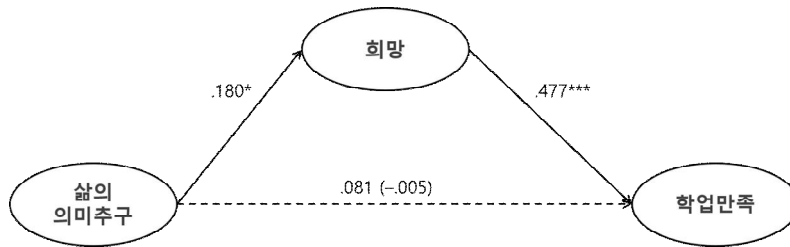


그림 1. 삶의 의미추구, 희망, 학업만족에 대한 매개모형(연구 1)

부트스트래핑을 5,000회 실시한 결과, 부트스트랩 계수는 .059였으며 95% 신뢰구간의 하한값은 .011, 상한값은 .117로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희망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

삶의 의미추구와 희망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삶의 의미추구와 희망의 관계에서 가족지원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통제변인인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삶의 의미존재를 투입하였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삶의 의미추구와 조절변인인 가족지

원을 평균 중심화하여 투입하였다. 3단계에서는 삶의 의미추구와 가족지원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삶의 의미추구와 가족지원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했으며($\beta = .125, p < .05$), 상호작용항으로 인한 모형의 증분 설명량이 유의미했다($\Delta R^2 = .015, p < .05$).

희망에 대한 삶의 의미추구와 가족지원의 상호작용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단순 기울기 검증(simple slope test)을 시행하였고(Hayes & Matthes, 2009) 그 결과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삶의 의미추구와 희망의 관계는 가족지원의 수준이 낮을 때($B = .054, SE = .075, ns$) 보다 가족지원 수준이 높을 때($B = .252, SE = .083, p < .01$) 더 강한 정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지원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의미추구와 희망의 정적 관계가 더

표 3. 삶의 의미추구와 희망의 관계에서 가족지원의 조절효과 (연구 1)

단계	변인	B	SE	β	t	R ²	ΔR^2
1	연령	-.014	.025	-.035	-.554		
	사회경제적 지위	.110	.067	.103	1.629	.261	.261
	삶의 의미존재	.395	.051	.493	7.768***		
2	삶의 의미추구	.141	.061	.174	2.305*	.286	.025
	가족지원	.040	.049	.055	.818		
3	삶의 의미추구 × 가족지원	.082	.041	.125	1.988*	.301	.015

주. * $p < .0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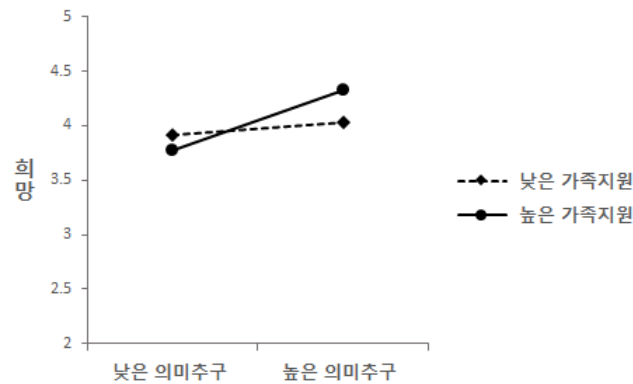


그림 2. 삶의 의미추구와 희망의 관계에서 가족지원의 조절효과

강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삶의 의미추구와 희망의 관계에서 친구지원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삶의 의미추구와 친구지원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삶의 의미추구와 친구지원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18, ns$).

연구 2

방법

연구대상

연구 2의 참가자들은 온라인 설문사이트를 통해 수집하였다. 연구 2는 서울 소재 국내 대학 연구소에서 고등학생의 정서경험을 수집하는 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 설문이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히고 설문을 완료한 313명의 고등학생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설문에 응답한 참가자들에게는 설문 완료 후 3,000원이 지급되었다. 참가자들은 남학생이 150명(47.9%)이었고, 평균 연령은 만 17.19세($SD = 0.81$)이었으며, 학년은 1학년이

75명(23.9%), 2학년이 105명(33.5%), 3학년이 133명(42.5%)으로 구성되었다. 소속된 고등학교의 종류로는 인문계가 243명(77.6%), 실업계 45명(14.4%), 특수고 15명(0.5%), 10명(0.3%)은 기타(대안학교, 체육고 등)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가 220명(70.3%), 기독교가 53명(16.9%), 천주교가 21명(6.7%), 불교가 16명(5.1%), 기타에 3명(0.5%)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상, 중상, 중, 중하, 하로 질문하였고, 중층이 158명(50.5%)로 가장 많았으며 중하층 73명(23.3%), 중상층 55명(17.6%), 하층 22명(7.0%), 상층 5명(1.5%)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내적 희망 및 외적 희망의 척도는 한국어로 번안되지 않아서 심리학 박사 두 명이 Brislin(1970)이 제안한 번역과정을 참고하여 진행하였다. 한 명이 영어로 된 원문 척도를 기존의 희망 상태 및 특질 상태 척도를 감안하여 한국어로 번역하였고, 이중 언어 사용자인 다른 저자가 한국어로 번안된 것을 영어로 역번역하였다. 원안과 번역된 문항, 역번역된 문항을 저자 및 한국어 전공 박사 한 명이 번역

이 원안의 의미를 제대로 반영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삶의 의미추구

삶의 의미추구는 연구 1에서 사용한 척도와 동일한 MLQ(Steger et al., 2006)를 사용하였으며 연구 2에서 해당 척도의 신뢰도는 .903이었다.

내적 희망 및 외적 희망

희망 척도는 원저자인 Bernardo(2010)에게 번역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번안을 진행하였다. 희망은 내적 희망, 외적-가족 희망, 외적-친구 희망, 외적-초월적 존재 희망 등 네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요인 별로 8개의 문항으로 총 3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척도는 원척도와 동일하게 4점 척도(1= 확실히 아니다, 4= 매우 맞다)로 평정하였다. 예시문항은 “나는 내 노력을 바탕으로 삶에서 중요한 목표를 달성해왔다(내적 희망),” “나의 부모는 내가 세운 목표들을 달성하도록 도와준다(외적-가족 희망),” “내 친구들은 종종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많은 방법들을 찾아준다(외적-친구 희망),” “신(초월적 존재)은 나의 미래를 잘 이끌어줄 것이다(외적-초월적 존재 희망)”과 같다. 연구 2의 해당 척도의 신뢰도계수는 내적 희망은 .885, 외적-가족 희망이 .927, 외적-친구 희망은 .898, 외적-초월적 존재 희망은 .986로 나타났다.

학업만족

학업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연구 1에서 사용한 학업만족을 고등학생의 상황에 맞게 전공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고 사용하였다. 예시

문항은 “나는 학업생활에 만족한다” 및 “나는 학업과정의 대부분을 즐기고 있다”가 있다. 연구 2에서 해당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919였다.

가족지원 및 친구지원

가족지원과 친구지원은 연구 1과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연구 2에서 가족지원의 신뢰도 계수는 .928이고, 친구 지원의 신뢰도 계수는 .904이었다.

통제변인

연구 1과 마찬가지로 MLQ(Steger et al., 2006)로 측정된 삶의 의미존재를 통제하였다. 연구 2에서 삶의 의미존재의 신뢰도 계수는 .837였다. 삶의 의미존재 외에 연구 1과 동일하게 연령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하였다.

분석 방법

연구 2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1.0 프로그램, SPSS Process macro,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희망의 하위요인이 한국 고등학생들에게 4요인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Amos 21.0을 사용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진행하였다. 이외의 분석 방법은 연구 1과 동일하다.

결 과

예비분석

연구 2에서 사용한 희망 척도가 4요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모형 비교를 위해 희망 척도가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1요인 모형과 희망 척도가 내적 희망과 외적 희망의 두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2요인 모형, 그리고 희망 척도가 내적 희망, 외적-가족 희망, 외적-친구 희망, 외적-초월적 존재 희망의 네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4요인 구조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4요인 모형의 경우 적합도 지수가 $\chi^2(458) = 807.169$, $p = .000$, CFI = .960, TLI = .956, RMSEA = .049, SRMR = .047로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요인 모형, 2요인 적합도 지수보다 더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1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464) = 4626.557$, $p = .000$, CFI = .520, TLI = .486, RMSEA = .170, SRMR = .242, 2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463) = 3607.427$, p

= .000, CFI = .637, TLI = .611, RMSEA = .148, SRMR = .215로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적합도를 보였다. χ^2 차이를 검증한 결과에서도 4요인 모형은 1요인 모형($\Delta\chi^2(6) = 3819.388$, $p < .001$), 2요인 모형($\Delta\chi^2(5) = 2800.258$, $p < .001$)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4요인 모형이 가장 우수한 모형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기술통계 및 주요 변인들의 상관

연구 2의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통제변인인 사회경제적 지위는 내적 희망($r = .192$, $p < .01$), 외적-가족 희망($r = .259$, $p < .001$), 학업만족($r = .155$,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삶의 의미

표 4. 기술통계 및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 (연구 2)

	1	2	3	4	5	6	7	8	9	10	11
1. 연령	-										
2. SES	-.086	-									
3. 의미존재	-.075	.153**	-								
4. 의미추구	-.031	.144*	.470***	-							
5. 내적희망	-.064	.192**	.595***	.525***	-						
6. 가족희망	-.036	.259***	.325***	.371***	.385***	-					
7. 친구희망	-.069	.101	.236***	.228***	.327***	.309***	-				
8. 초월적 존재희망	-.043	-.025	.227***	.073	.126*	.211***	.174**	-			
9. 가족지원	-.029	.265***	.301***	.348***	.296***	.781***	.343***	.220***	-		
10. 친구지원	-.033	.169**	.302***	.252***	.359***	.441***	.617***	.114*	.569***	-	
11. 학업만족	-.116*	.155**	.335***	.337***	.469***	.351***	.394***	.180**	.382***	.396***	-
M	17.110	2.830	4.560	5.116	2.858	2.766	2.629	1.724	3.522	3.667	3.240
SD	.805	.854	1.218	1.120	.546	.694	.596	.928	1.008	.932	.895

주. SES=사회경제적 지위 (하층(1)~상층(5)), * $p < .05$, ** $p < .01$, *** $p < .001$

존재는 삶의 의미추구($r = .470, p < .001$), 내적 희망($r = .595, p < .001$), 외적-가족 희망($r = .325, p < .001$), 외적-친구 희망($r = .236, p < .001$), 외적-초월적 존재 희망($r = .227, p < .001$), 학업만족($r = .335,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독립변인인 삶의 의미추구의 경우 내적 희망($r = .525, p < .001$), 외적-가족 희망($r = .371, p < .001$), 외적-친구 희망($r = .228, p < .001$), 학업만족($r = .337,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학업만족과 매개변인인 내적 희망($r = .469, p < .001$), 외적-가족 희망($r = .351, p < .001$), 외적-친구 희망($r = .394, p < .001$), 외적-초월적 희망($r = .180, p < .01$)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조절변인인 가족지원($r = .382, p < .001$)과 친구지원($r = .396, p < .001$)도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0.001)과 친구지원($r = .396, p < .001$)도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희망의 매개효과

삶의 의미추구와 학업만족의 관계에서 희망의 하위요인(내적 희망, 외적-가족 희망, 외적-친구 희망, 외적-초월적 존재 희망)이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SPSS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다중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삶의 의미존재를 통제한 이후 삶의 의미추구는 내적 희망($\beta = .308, p < .001$), 외적-가족 희망($\beta = .262, p < .001$), 외적-친구 희망($\beta = .146, p < .05$)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으며

표 5. 삶의 의미추구와 학업만족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 효과 (연구 2)

	희망				학업만족	
	내적	외적-가족	외적-친구	외적-초월적 존재	모형 1	모형 2
	β (SE)	β (SE)	β (SE)	β (SE)	β (SE)	β (SE)
1단계						
연령	-.012 (.029)	.004 (.044)	-.046 (.041)	-.031 (.064)	-.083 (.058)	-.083 (.053)
사회경제적 지위	.103 (.028)	.214*** (.042)	.063 (.039)	-.063 (.061)	.100 (.056)	.100 (.052)
삶의 의미존재	.578*** (.022)	.293*** (.033)	.223*** (.031)	.234*** (.048)	.313*** (.044)	.313*** (.046)
2단계						
삶의 의미추구	.308*** (.024)	.262*** (.036)	.146* (.033)	-.038 (.052)	.223*** (.047)	.075 (.047)
3단계						
내적 희망						.284*** (.107)
외적-가족 희망						.114* (.072)
외적-친구 희망						.224*** (.078)
외적-초월적 존재 희망						.070 (.048)
F	59.890***	19.706***	6.564***	4.668**	15.616***	17.675***
R ²	.438***	.204***	.079***	.057**	.169***	.318***

외적-초월적 존재 희망($\beta = -.038, ns$)과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 1에서 삶의 의미 추구는 학업만족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beta = .223, p < .001$), 모형 2에서 매개변인인 내적 희망, 외적-가족 희망, 외적-친구 희망, 외적-초월적 존재 희망을 투입한 이후 삶의 의미추구와 학업만족의 관계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아($\beta = .075, ns$) 내적 희망과 외적 희망이 삶의 의미추구와 학업만족의 관계를 완전 매개함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모형 2에서 내적 희망($\beta = .284, p < .001$), 외적-가족 희망($\beta = .114, p < .05$), 외적-친구 희망($\beta = .224, p < .001$)은 학업만족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으며, 외적-초월적

존재 희망과 학업만족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beta = .070, ns$).

추가적으로 희망의 하위요인들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표 6). 내적 희망과 외적-친구 희망의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희망의 하위요인 가운데 내적 희망과 외적-친구 희망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삶의 의미추구와 학업만족의 관계에서 내적 희망과 외적-친구 희망이 완전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 2의 매개모형을 그림 3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6. 희망 하위요인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부트스트래핑 분석 결과 (연구 2)

변인	Boot 계수	Boot SE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내적 희망	.070	.024	.031	.126
외적-가족 희망	.024	.016	-.001	.063
외적-친구 희망	.026	.015	.005	.063
외적-초월적 존재 희망	-.002	.004	-.015	.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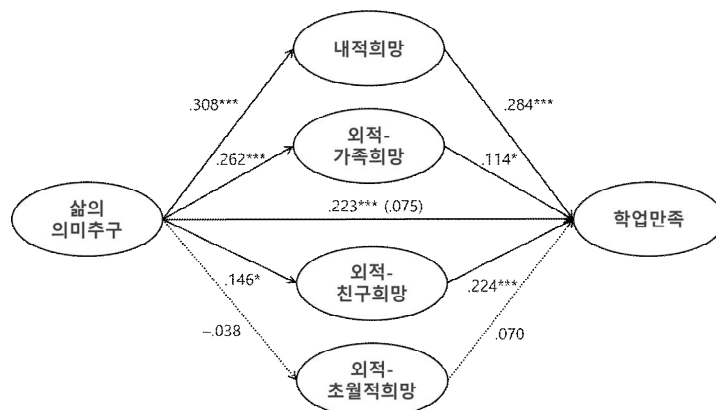


그림 3. 삶의 의미추구, 희망, 학업만족에 대한 매개모형(연구 2)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

매개효과가 내적 희망 및 외적-친구 희망에 서만 유의미했기 때문에 해당 두 개의 희망에 대해서만 삶의 의미추구와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삶의 의미추구와 희망 하위요인(내적 희망, 외적-친구 희망)의 관계에서 가족지원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통제변인인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삶의 의미존재를 투입하였다. 2단계

에서는 평균 중심화한 삶의 의미추구와 가족 지원을 투입하였다. 3단계에서는 삶의 의미추구와 가족지원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내적 희망에 대한 삶의 의미추구와 가족지원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했으며 ($\beta = .105, p < .05$), 상호작용항으로 인한 모형의 증분 설명량 역시 유의미했다($\Delta R^2 = .010, p < .05$). 반면 외적-친구 희망에 대한 삶의 의미추구와 가족지원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beta = -.013, ns$).

내적 희망에 대한 삶의 의미추구와 가족지

표 7. 삶의 의미추구와 희망 하위요인의 관계에서 가족지원의 조절효과 (연구 2)

단계	변인	내적 희망		외적-친구 희망	
		β (SE)	ΔR^2	β (SE)	ΔR^2
1	연령	-.012 (.031)		-.046 (.041)	
	사회경제적 지위	.103 (.029)	.364***	.063 (.039)	.062***
	삶의 의미존재	.578*** (.021)		.223*** (.027)	
2	삶의 의미추구	.297*** (.024)	.075***	.077 (.033)	
	가족지원	.044 (.026)		.283*** (.035)	.082***
3	삶의 의미추구 × 가족지원	.105* (.018)	.010*	-.013 (.024)	.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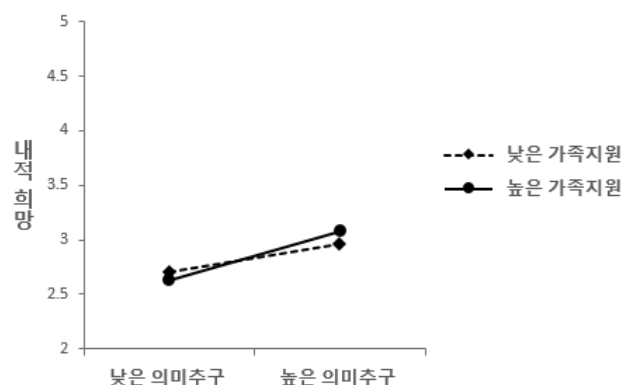


그림 4. 삶의 의미추구와 내적 희망의 관계에서 가족지원의 조절효과

표 8. 연구 1 및 연구 2 가설 검증 방법 및 결과 요약

		검증 내용	검증 방법	검증 결과
연구 1 (대학생)	희망의 매개효과	희망의 매개효과	위계적 회귀분석 bootstrapping 검증	지지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	가족지원의 조절효과 친구지원의 조절효과	위계적 회귀분석	지지 기각
		내적희망의 매개효과		지지
연구 2 (고등학생)	희망의 매개효과	외적-가족 희망의 매개효과	다중매개분석	기각
		외적-친구 희망의 매개효과	bootstrapping 검증	지지
		외적-초월적 존재 희망의 매개효과		기각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	가족지원의 조절효과 친구지원의 조절효과	위계적 회귀분석	지지 기각

원의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단순 기울기 검증을 시행하였고(Hayes & Matthes, 2009) 그 결과를 그림 4에 제시하였다. 삶의 의미추구와 내적 희망의 관계는 관계는 가족지원의 수준이 낮을 때($B = .114$, $SE = .028$, $p < .001$) 보다 가족지원 수준이 높을 때($B = .200$, $SE = .033$, $p < .001$) 더 강한 정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마지막으로, 삶의 의미추구와 내적 희망 및 외적-친구 희망의 관계에서 친구지원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삶의 의미추구와 친구지원의 상호작용 효과는 희망의 하위 요인인 내적 희망($\beta = .019$, ns ; $\Delta R^2 = .000$, ns), 외적-친구 희망($\beta = .017$, ns ; $\Delta R^2 = .000$, ns)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상호작용항으로 인한 모형의 증분 설명량 역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 1과 마찬가지로 연구 2에서도 친구지원과 삶의 의미추구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연구 1과 연구 2의 가설 검증 결과를 종합하면 표 8과 같다.

논 의

연구 1과 연구 2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1의 결과, 대학생의 삶의 의미추구와 학업만족의 관계를 희망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의미추구와 희망의 관계에서 가족 및 친구지원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가족지원의 조절효과만 유의하였다. 즉, 가족지원이 높을 경우 삶의 의미를 추구할수록 희망이 높아지지만 가족지원이 낮을 경우에는 삶의 의미추구와 희망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2에서도 삶의 의미추구와 학업만족의 관계를 희망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의 하위요인을 내적 희망, 외적-가족, 외적-친구, 외적-초월적 존재 희망으로 분류하여 매개효과를 살펴 본 결과 내적 희망 및 외적-친구 희망의 매개효과만 유의했으며 두 개의 희망이 삶의 의미추구와 학업만족의 관계를 완전매개하였다. 또, 삶의 의미추구와 희망의 관계에서 가족지원 및 친구지원

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 삶의 의미추구와 내적 희망의 관계에서 가족지원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가족지원이 높은 경우 낮은 경우보다 삶의 의미추구와 내적 희망의 정적 관계가 강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삶의 의미추구와 학업만족의 관계에서 희망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1에서 삶의 의미추구는 학업 영역 내의 희망에 의해서 학업만족으로 이어졌으며 해당 관계는 삶의 의미존재, 사회경제적 지위 및 연령을 통제했을 때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삶에서 의미를 추구하는 대학생들은 자신의 학업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주도적 사고와 경로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희망을 가지게 되어 학업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에서도 내적 희망과 외적-친구 희망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만족의 향상에 있어서 삶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동기 및 학업과 삶에서 느끼는 희망이 학업만족을 예측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과거 연구에서 학업만족은 학교 내 사회적 관계(황여정, 김경근, 2006) 및 학업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효능감(윤혜경, 이지연, 2014; Lent et al., 2005) 등이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희망은 사회적 관계와 효능감의 관계와 함께 학업만족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사회적 요인과 효능감이 학업만족에 미치는 경로에서 목표과정이 중요한 매개체의 역할을 하며(윤혜경, 이지연, 2014; Lent et al., 2005), 희망은 긍정적인 재평가(조은혜 등, 2012) 및 문제해결과정(원두리, 2011)을 예측하는 요인이 된다. 즉,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해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장은주, 이종연, 2014), 이러한 태도가 학업만족을 향상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학업만족에 있어서 희망의 역할을 파악하는 것은 학업만족의 경로를 이해하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본 연구 결과는 대학생의 삶의 의미추구와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를 밝힌 연구(송현심, 성승연, 2017) 및 국내 청소년의 희망이 안녕감에 주요한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이희경, 2007; 장은주, 이종연, 2014)와 일맥상통한다. 삶의 의미추구와 학업만족의 관계에서 미래 지향적이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심리적 자원인 희망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 2에서 고등학생의 삶의 의미추구와 학업만족의 관계에서는 내적 희망의 매개효과와 외적 희망 중 친구와 관련된 외적 희망의 매개효과만 유의했다. 특히, 이 관계에서 내적 희망의 역할이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신이 희망의 원천이 되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고등학생의 삶의 의미추구가 학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타인이 아닌 자신이 목표를 달성하고 목표를 향한 경로를 생성하고 실행할 수 있는 주도자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내적 희망의 매개효과를 보여주는 본 연구 결과는 홍콩, 마카오, 필리핀 등 다양한 아시아 국가의 대학생의 희망에 대한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Bernardo, Yeung, Resurreccion, Resurreccion, & Khan, 2018). 대학생을 대상으로 내적 희망과 외적 희망과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내적 희망은 대학생들의 안녕감과 일관적으로 정적인 관계가 있었으나 외적 희망은 안녕감이나 적응적 태도와 부적 관계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Bernardo et al., 2018). 연구자들은 희망의 주체가 자신이 아닌 외부에 의존한 희망만 향상시키는 것은 오히려 대학생들의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내적 희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Bernardo et al., 2018).

연구 2의 결과, 내적 희망과 더불어 친구에게 기반 한 외적 희망이 삶의 의미추구와 학업만족의 관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적-친구 희망이 학교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Datu & Mateo, 2017). 즉,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고등학생들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친구가 동기를 주고 친구가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주체라는 생각이 높을수록 학업만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적-친구 희망의 유의한 매개효과는 고등학생의 특성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을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고등학생은 중학생에 비해서 또래 집단에서 느끼는 관계성이 삶의 만족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신미, 전성희, 유미숙, 2010). 고등학생은 중학생에 비해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친구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는데(신미 등, 2010) 희망의 인식에서도 이런 특성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 부모에게 기인한 외적 희망이 삶의 의미추구, 학업만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음에도 다른 희망의 매개효과를 감안했을 때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던 것은 고등학생에게는 부모보다 친구와 자신에게 기반 한 희망의 역할이 주요함을 알 수 있다. 외적-초월적 희망은 삶의 의미 및 학업만족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 삶의 의미추구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또,

삶의 의미추구와 학업만족 관계에서 외적-초월적 희망의 매개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초월적 존재와 관련된 희망은 안녕감과 부적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Du & King, 2013), 초월적 존재가 경로 사고와 주도성의 주체가 된다고 믿는 믿음은 언제, 어떻게 긍정적인 기능을 발휘하는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네 개의 희망이 삶의 의미추구, 삶의 의미존재, 학업만족과 관계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네 개의 희망이 한국 학생에게도 분별될 수 있는 요인임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추후 연구에서도 다각도에서 희망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삶의 의미추구, 희망, 학업만족의 관계를 고등학생과 대학생과 같이 두 개의 다른 집단에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두 집단의 차이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고등학생은 청소년 후기, 대학생은 청년 초기에 해당하는 집단으로 두 집단은 주요 발달과업에 차이가 있다(Arnett, 2000; Erikson, 1968). 청소년 후기는 자신의 정체성, 진로 목표를 확립하는 것이 주요 발달 과제인 반면 청년 초기의 대학생은 자율과 심리적 독립의 성취라는 전인적 발달과업 수행을 하는 시기이다(Arnett, 2000; Erikson, 1968). 대학생과 고등학생 집단 모두 삶의 의미추구와 학업만족의 관계가 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한국인들의 삶의 의미추구는 부정적이라기보다 안녕감 향상에 긍정적 요인이라는 선행연구(송현심, 성승연, 2017; 원두리 외, 2005)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반면, 의미존재를 통제한 상태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1에서는 의미추구가 학업만족에 미치는 전체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2의 경우 이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은 대학생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자아정체성이나 구체적인 진로 목표에 대한 충분한 탐색이 이루어지지 않아(박아청, 2004; 이재창, 최인화, 박미진, 2002), 삶의 의미추구가 학업만족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넷째, 삶의 의미추구와 희망의 관계에서 가족지원 및 친구지원의 강화효과를 확인하였는데 대학생 및 고등학생 모두 가족지원의 조절 효과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으로부터 받는 지원은 삶의 의미추구와 희망의 관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은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이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삶의 의미추구와 희망이 강화된다. 삶의 의미추구와 학업만족의 관계에서 가족에 기반한 희망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가족의 지원은 중요하지만 가족의 지원이 가족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주체라는 인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지원을 내면화하여 자신이 주도성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가족지원의 강화효과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 모두에게 유의했는데, 가장 가까운 사회적 관계인 가족의 물적, 심리적 지원이 청소년기의 삶의 의미추구와 희망의 관계를 촉진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을 알 수 있다. 해당 연구 결과는 부모의 지원이 희망의 선행요인이 된다는 연구(Bernardo et al., 2017)와 일맥상통한다. 고등학생과 대학생과 같이 상급학교로 갈 경우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낮아지는데(Helsen, Vollebergh, & Meeus, 1999), 저하된 부모의 지원은 어려움 극복 효능감 및 행복 수준의 저

하에 영향을 주었다(박영신, 김의철, 2009). 부모지원이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삶의 의미추구와 희망의 관계를 강화한다는 것은 청소년 후기 및 청년 진입 단계에도 부모의 지속적인 지지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반면, 삶의 의미추구와 희망의 관계에서 친구지원의 강화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희망은 목표를 향한 에너지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Snyder, 2002), 가족 지원은 실질적인 학습의 환경 및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친구 지원은 실질적인 목표 달성과 관련한 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 결과는 부모지원이 친구지원보다 청소년의 정서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연구와 일맥상통한다(Helsen et al., 1999). 약 3000명의 네덜란드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원이 정서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친구 지원의 긍정적인 역할은 부모지원의 정도에 따라 달라졌는데 부모지원이 높은 집단에서 친구 지원이 정서적 건강에 미치는 정적 효과가 강화되었다(Helsen, et al., 1999). 또 친구 지원을 높게 인식하더라도 친구들이 친사회적 친구인지 등 친구의 유형에 따라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Hartup, 1996). 친구-외적 희망은 삶의 의미추구와 학업만족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져서 친구로부터 받는 지지의 형태가 중요한 것일 수 있다. 즉, 친구가 희망의 근원이라고 인식하는 친구와 일반적인 친구 지지는 다른 형태일 수 있다. 친구로부터 안정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반적인 지원을 받는 것보다 목표를 해결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종류의 지지가 희망으로 연결되는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연구 2의 희망 척도의 요인을 분석했지만 국내에서 타당화 되지 않은 척도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지닌다. 해당 척도는 특질 희망을 측정하는데 개발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희망이 삶의 의미추구나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사용하였다. 희망은 특질 및 상태로 구분되지만 두 개의 희망은 독립적이고 분리되어 있다기보다 연속선상에 위치한다(Chen, Gully, Whiteman, & Kilcullen, 2000). 실제로 희망 척도는 상태 희망과 특성 희망을 통합해서 다수 연구되었다. 청소년의 희망 연구 동향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60.6% 가량의 연구가 특성 희망 및 상태 희망을 함께 통합해서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미나, 이창식, 2011). 네 개의 희망 요인 척도를 개발한 원저자들 역시 희망은 사회적, 개인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인임으로 설명하였다(Bernardo, 2013). 척도를 개발한 Bernardo와 동료들은 희망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요인을 파악하고(Bernardo, 2013), 희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입 프로그램(intervention program)을 통해 외적 희망이 증가했는지를 연구한 바 있다(Bernardo et al., 2018). 하지만, 국내에서는 해당 척도가 타당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개의 희망 요인을 타당화하고 희망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측정하기 위한 노력들이 추후연구에서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다른 생애주기에 해당하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연구 결과를 반복검증 하였지만, 초기 청소년기 및 성인기 등 다른 대상에도 본 연구 결과가 나타나는지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

이다. 삶의 의미추구와 안녕감의 관계는 연령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Steger et al., 2009). 희망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역시 생애주기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년 집단보다 대학생과 같이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집단의 안녕감에 희망이 더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송현심, 성승연, 2017). 다양한 생애 주기에서 삶의 의미추구와 희망, 희망의 원천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또, 본 연구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두 집단에서 해당 가설을 반복 검증하면서 연구 결과를 확장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두 집단을 대상으로 동일한 희망 척도를 사용하지 않았다. 희망을 측정함에 있어서 연구 1에서는 학업과 관련된 희망 척도를, 연구 2에서는 일반적인 희망 척도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지닌다. 추후 연구에서는 척도를 동일화하고 집단 간 연구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가족지원과 친구지원이 삶의 의미추구와 희망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해당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개인적, 사회적 요인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변인으로 사용하였지만 부모의 사회적 지위는 부모지원 수준 및 학업 성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박영신, 김의철, 2009), 주관적 및 객관적 사회적 지위는 개인의 의미 수준에 영향을 준다(박지영, 손영우, 2018; Ward & King, 2016). 연구 1과 연구 2에서도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희망이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지원, 친구지원 외에도 사회경제적 지위 등 삶의 의미추구, 희망,

학업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삶이 의미추구와 학업만족의 관계에서 희망의 역할을 확인하고 희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앞으로의 시기에 청소년과 대학생들은 더 많은 혼란과 정체성에 대한 고민 그리고 개인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질문을 가질 것이다.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의 삶의 의미추구가 학업만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희망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삶에 대해 더 큰 가치와 목표를 찾기 위해 의미 추구를 하고 있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학업만족 향상을 위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동기와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희망의 근원이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부모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삶의 의미추구가 희망과 학업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연구와 희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제안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기정, 김해란 (2016). 자기성찰과 안녕감의 관계에서 의미추구 및 의미발견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3(12), 159-185.
- 김상희, 박성현 (2017). 연령대별 삶의 의미와 안녕감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1(1), 61-78.
- 김아영, & 이명희 (2008). 청소년의 심리적 욕구만족, 우울경향,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구조와 학교급간 차이. *교육심리연구*, 22(2), 423-441.
- 문은식, 김충희 (2003). 부모의 학습지원행동과 초·중학생의 학업동기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7(2), 271-288.
- 박아청 (2004). 청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단계의 특성분석.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8(1), 301-312.
- 박영신, 김의철 (2009). 한국 청소년의 행복: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자원과 학업성취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5(3), 399-429.
- 박지영, 손영우 (2018). 주관적 사회적 지위가 일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감성과학*, 21(2), 43-60.
- 이재창, 최인화, 박미진 (2003).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성격특성과의 관계 연구. *진로교육연구*, 16(2), 63-80.
- 송현심, 성승연 (2017). 대학생과 중년성인의 의미추구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3), 843-870.
- 신미, 전성희, 유미숙 (2010). 청소년의 삶의 만족과 안녕에 관한 요인 연구. *청소년학연구*, 17(9), 131-150.
- 신준섭, 이영분 (1999). 사회적 지지가 실직자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7(4), 241-269.
- 원두리 (2011). 사회적지지, 희망 및 문제해결 대처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2), 297-311.
- 원두리, 김교현, 권선중 (2005). 한국판 삶의 의미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10(2), 211-225.
- 윤혜경, 이지연 (2014). 한국고등학생의 사회인
지요인과 학업만족의 관계: Lent의 학업만
족 모형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5(5),
1957-1977.
- 이희경 (2007). 중학생의 희망과 공감 하위집
단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한국심
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751-
766.
- 장은주, 이종연 (2014). 희망의 주도사고 및 경
로사고와 고등학생의 학업성취 및 주관적
안녕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상담학연
구*, 15(1), 371-393.
- 정주리, 이기학 (2007). 의미발견을 통한 의미
추구와 주관적 안녕감의 모형검증: 문제
해결 책임감과 긍정적 재해석을 매개로.
상담학연구, 8(4), 1311-1323.
- 정미나, 이창식 (2011). 청소년의 희망에 관한
연구동향. *청소년학연구*, 18(3), 273-299.
- 최아라, 이 숙 (2016). 중학생의 기질, 사회적
지지 및 정서조절능력이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7(2), 57-77.
- 한덕웅, 최훈석 (2006). 한국 사회문제의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2(1),
103-128.
- 황여정, 김경근 (2006). 일반계 고등학생의 학
교만족도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2), 16,
181-203.
- Alter, A. L., & Hershfield, H. E. (2014). People
search for meaning when they approach a
new decade in chronological ag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1(48),
17066-17070.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
480.
- Astin A. W. (1991). *Assessment for excellence: The
philosophy and practice of assessment and evaluation
in higher education*. New York, NY:
Macmillan.
- Baumeister, R. F. (1991). *Meanings of life*. New
York, NY: Guilford.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3),
497-529.
- Bernardo, A. B. (2010). Extending hope theory:
Internal and external locus of trait hop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9(8),
944-949.
- Bernardo, A. B. (2013). Hope grounded in belief:
Influences of reward for application and social
cynicism on dispositional hope.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54(6), 522-528.
- Bernardo, A. B., Wang, T. Y., Pesigan, I. J. A.,
& Yeung, S. S. (2017). Pathways from
collectivist coping to life satisfaction among
Chinese: The roles of locus-of-hop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6(1), 253-256.
- Bernardo, A. B., Yeung, S. S., Resurreccion, K.
F., Resurreccion, R. R., & Khan, A. (2018).
External locus of hope, well being, and
coping of students: A cross cultural
examination within Asia. *Psychology in the
Schools*, 55(8), 908-923.
- Brislin, R. W. (1970). Back-translation for
cross-cultural research. *Journal of Cross-Cultural*

- Psychology*, 1(3), 185-216.
- Buss, D. M. (2008). Human nature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O. P. John, R. W. Robins, & L. A. Pervin (Eds.),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3rd ed., pp. 29-60). New York, NY: Guilford Press.
- Chen, G., Gully, S. M., Whiteman, J. A., & Kilcullen, R. N. (2000). Examination of relationships among trait-like individual differences, state-like individual differences, and learning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5(6), 835-847.
- Datu, J. A. D., & Jose Mateo, N. (2017). How to combat the negative impact of discrimination in a collectivist context? The safeguarding function of peer-oriented hope. *Psychology, Health & Medicine*, 22(3), 345-351.
- Demaray, M. K., Malecki, C. K., Davidson, L. M., Hodgson, K. K., & Rebus, P. J.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student adjustment: A longitudinal analysis. *Psychology in the Schools*, 42(7), 691-706.
- Du, H., Bernardo, A. B., & Yeung, S. S. (2015). Locus-of-hope and life satisfaction: The mediating roles of personal self-esteem and relational self-estee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3, 228-233.
- Du, H., & King, R. B. (2013). Placing hope in self and others: Exploring the relationships among self-construals, locus of hope, and adjustmen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4(3), 332-337.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Y: Norton.
- Fan, X., & Chen, M. (2001). Parental involvement and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A meta-analysis.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3(1), 1-22.
- Frankl, V. E. (1963). *Man's search for meaning: An introduction to logotherapy*. New York: Washington Square Press.
- Grolnick, W. S., & Slowiaczek, M. L. (1994). Parents' involvement in children's schooling: A multidimensional conceptualization and motivational model. *Child Development*, 65(1), 237-252.
- Hartup, W. (1996).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s and their developmental significance. *Child Development*, 67(1), 1-13.
- Hayes, A. F. (2009). Beyond Baron and Kenny: Statistical mediation analysis in the new millennium. *Communication Monographs*, 76(4), 408-420.
- Hayes, A. F., & Matthes, J. (2009). Computational procedures for probing interactions in OLS and logistic regression: SPSS and SAS implementation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3), 924-936.
- Helsen, M., Vollebergh, W., & Meeus, W. (1999). Psychosociale problemen in de adolescentie: De samenhang met hechting aan ouders en vrienden en identiteit [Psychosocial problems in adolescence: The relation with attachment to parents and friends and identity]. *Nederlands Tijdschrift voor de Psychologie en haar Grensgebieden*, 54(6), 256-275.
- Hirschi, A. (2014). Hope as a resource for self-directed career management: Investigating mediating effects on proactive career behaviors and life and job satisfaction. *Journal of*

- Happiness Studies*, 15(6), 1495-1512.
- Hobfoll, S. E. (2002). Social and psychological resources and adaptation.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6(4), 307.
- King, L. A., & Napa, C. K. (1998). What makes a life g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1), 156-165.
- Lent, R. W., Singley, D., Sheu, H., Gainor, K., Brenner, B. R., Treistman, D., & Ades, L. (2005). Social cognitive predictors of domain and life satisfaction: Exploring the theoretical precursors of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3), 429-442.
- Lent, R. W., Singley, D., Sheu, H. B., Schmidt, J. A., & Schmidt, L. C. (2007). Relation of social-cognitive factors to academic satisfaction in engineering stud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5(1), 87-97.
- Luthans, F., & Jensen, S. M. (2002). Hope: A new positive strength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Human Resource Development Review*, 1(3), 304-322.
- Luthans, B. C., Luthans, K. W., & Jensen, S. M. (2012). The impact of business school students' psychological capital on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 for Business*, 87(5), 253-259.
- Park, N., Peterson, C., & Seligman, M. E. (2004). Strengths of character and well-being.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5), 603-619.
- Oishi, S., & Diener, E. (2003). Culture and well-being: The cycle of action, evaluation, and deci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8), 939-949.
- Raja, S. N., McGee, R., & Stanton, W. R. (1992). Perceived attachments to parents and peer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4), 471-48.
- Shin, J. Y., & Steger, M. F. (2016). Supportive college environment for meaning searching and meaning in life among Americ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57(1), 18-31.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nyder, C. R. (2002). Hope theory: Rainbows in the mind. *Psychological Inquiry*, 13(4), 249-275.
- Snyder, C. R., Harris, C., Anderson, J. R., Holleran, S. A., Irving, L. M., Sigmon, S. T., Yoshinobu, L., Gibb, J., Langelle, C., & Harney, P. (1991). The will and the way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dividual-differences measure of ho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570-585.
- Snyder, C. R., Simpson, S. C., Ybasco, F. C., Borders, T. F., Babyak, M. A., & Higgins, R. L. (199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tate hop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21-335.
- Spencer-Rodgers, J., Boucher, H. C., Mori, S. C., Wang, L., & Peng, K. (2009). The dialectical self-concept: Contradiction, change, and holism in East Asian cultur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5(1), 29-44.
- Steger, M. F., Frazier, P., Oishi, S., & Kaler, M. (2006).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Assessing the presence of and search for meaning in lif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 53(1), 80-93.
- Steger, M. F., Kawabata, Y., Shimai, S., & Otake, K. (2008). The meaningful life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Levels and correlates of meaning in lif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2(3), 660-678.
- Steger, M. F., Oishi, S., & Kashdan, T. B. (2009). Meaning in life across the life span: Levels and correlates of meaning in life from emerging adulthood to older adulthood.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4(1), 43-52.
- Updegraff, J. A., Silver, R. C., & Holman, E. A. (2008). Searching for and finding meaning in collective trauma: Results from a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the 9/11 terrorist attack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5(3), 709-722.
- van Tilburg, W. A., & Igou, E. R. (2019). Dreaming of a brighter future: anticipating happiness instills meaning in lif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20(2), 541-559.
- Ward, S. J., & King, L. A. (2016). Poor but happy? Income, happiness, and experienced and expected meaning in life.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7(5), 463-470.
- Yarcheski, A., & Mahon, N. E. (2016). Meta-analyses of predictors of hope in adolescents.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38(3), 345-368.
- Zimet, G. D., Dahlem, N. W., Zimet, S. G., & Farley, G. K.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1), 30-41.

원 고 접 수 일 : 2019. 02. 18.
수정 원고접수일 : 2019. 06. 04.
최종 게재결정일 : 2019. 08. 12.

Search for meaning in life and academic satisfaction: A mediating role of hope and a moderating role of social support

Jiyoung Park

Research Institute for Humanities,
Chung-Ang University

Yeseul Jung

Psychological Department,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hed light on a role of hope in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arch for meaning in life and academic satisfaction and to suggest ways to increase hope among Korean students. We hypothesiz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search for meaning in life and academic satisfaction would be mediated by hope and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search for meaning and hope would be strengthened by family support and friend support. We conducted two surveys to examine the hypotheses. Based on Study 1 using a sample of 190 undergraduate students, we foun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search for meaning in life and academic satisfaction was fully mediated by hope. In Study 2, we examined the four types of hope that include internal hope and three types of external hope (i.e., family, friends, and supernatural being) to extend knowledge on what features of hope medi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search for meaning and academic satisfaction. Study 2 based on a sample of 313 high school students showed that the link from the search for meaning in life and academic satisfaction was fully mediated by internal hope and external-peers hope. The mediating effects of external-family hope and external-spiritual hope were not significant in Study 2. Also, we found that family support strengthened the positive links from the search for meaning in life to hope (Study 1) and to internal hope (Study 2) while the interactive effects of friend support and the search for meaning on hope were not significant in both studies. Based on the results, we discussed several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Search for meaning in life, Academic satisfaction, Internal hope, External hope, Family support, Friend support